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은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생각하고 간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조용한 도시입니다. 대학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식당이나 마트 등 변화가로 나가려면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안에는 수영장, 도서관등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시설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은 코딩을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이 전부입니다. 교수님은 친절하시고 영상이나 PPT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의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날 제작한 홈페이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샤스타대학 외국친구 한명 그리고 순천향대 학생 한명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 제작하며, 배운대로만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필드트립	필드트립은 다양한 곳으로 갑니다. 야외 필드 트립은 계곡이나 호수, 댐 투어등이 있었는데 미국 태양이 매우 뜨가우니 썬크림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액티비티 외에 추가로 즐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했습니다. 워터파크외에도 물에 들어가는 필드트립이 많았습니다. 수영복은 편한걸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생각보다 쇼핑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로 주요관광지 투어로 일정이 끝나니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3주 동안 비가 딱 한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매우 희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가 건조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매우 썩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챙겨주세요
안전	대학교안은 시큐리티분들이 항상 순찰을 돌고 계셔서 안전합니다. 실제로 밤늦게까지 기숙사 공용시설에서 떠돌고 있다보면 한번씩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학교 밖인 시내에도 늦은 오후까지 있긴 했지만 샤스타 친구들과 함께여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는 홈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진 않습니다.
숙소	샤스타 친구 한명과 같이 방을 씁니다. 2층 침대이며 좁지는 않습니다 다만 옷장에 옷걸이가 없으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조금 더러웠지만 쓰다보니 괜찮았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를 돌리려면 25센트 짜리 동전이 필요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주로 학교 카페테리아를 이용합니다. 다만 갑자기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지 않는날이 있습니다. 이런날에는 미리 사둔 라면을 먹거나 샤스타 친구들과 함께 외부 식당에 방문하여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매우 맛이없어서 매번 사먹었습니다.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한적이 없습니다. 기존 일정을 제외하고 외부로 이동할때는 외국친구들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나갔습니다. 우버가 있긴하나 비싸고 부르기 힘듭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80000원	물,음료,외식비용등
쇼핑비용	450000원	옷,기념품등
비행기값	약1500000원	
합계	203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개인 식기류를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일회용품이 준비되어 있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식이 매우 그리기 때문에 가져갈수 있는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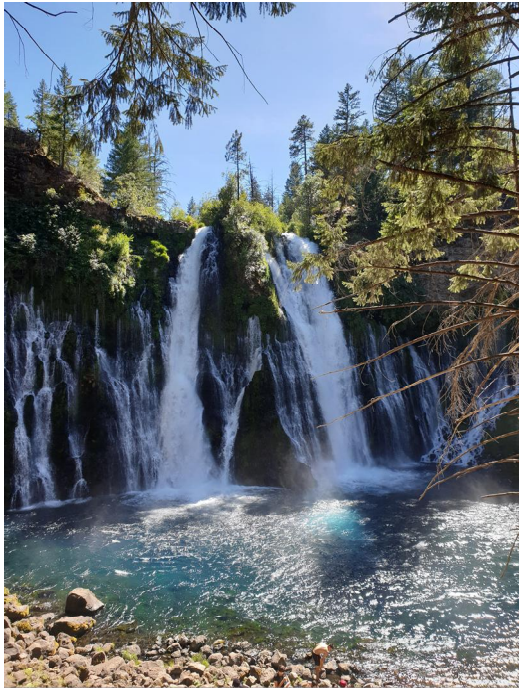
마지막 날 룸메이트나 친해진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현금을 다 썼을 시 카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외결제 수수료 우대 카드를 미리 발급하여 가져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어떻게 적응할까, 라는 생각을 안고 갔지만 몇 일 지나보니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영어실력으로도 외국친구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좀 더 잘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 공부 그리고 회화 공부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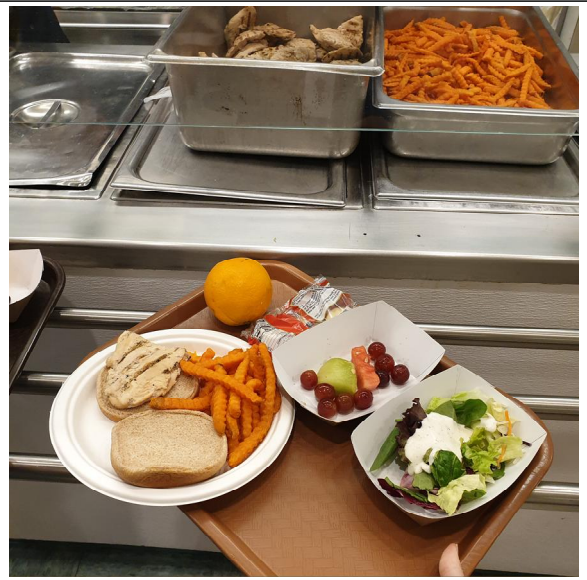
하루하루가 정말 다 재미있고 소중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여할 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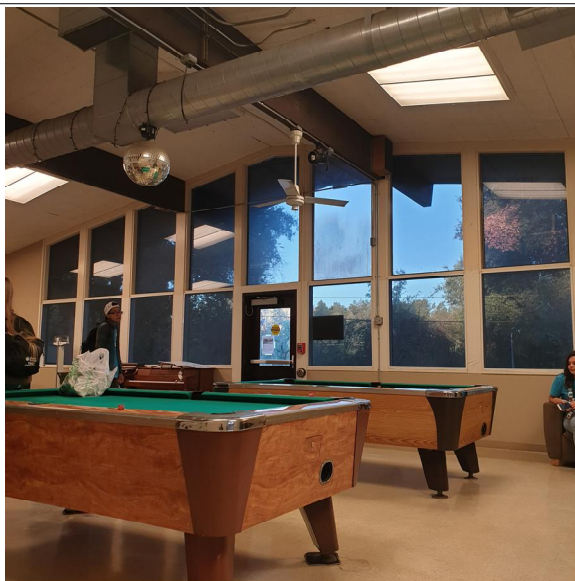
	
Burney Falls, 물이 매우차갑다 가는데 2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의 가치가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불꽃축제를 보러갑니다. 매우 가까이서 볼 수있었습니다 잔디밭에 앉기 때문에 돛자리를 챙겨가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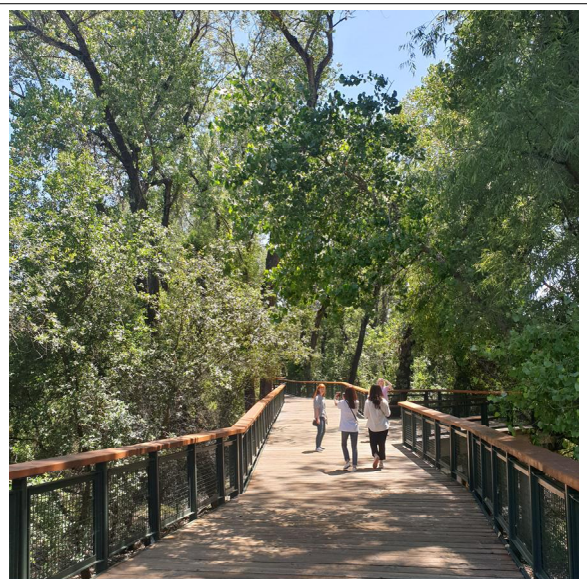
필드트립중 하나인 워터파크를 갔을때입니다.
튜브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합니다



평소에 먹는 카페테리아 음식입니다.
매우짭니다



기숙사 옆에 붙어있는 COMMONS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요리를 해먹고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보냅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Turtle Bay입니다.
필드트립 일정에도 있었지만 따로
친구들과 방문하기도 했던 곳입니다.